

김대식 교수의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이자, 동시에 실용적인 생존 지침서와 같다. 단순히 AI 기술의 현주소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AI가 가져올 인간성의 변화와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태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든다. 특히 '나보다 AI를 먼저 이해한 경쟁자 때문에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이 시대에 우리가 AI 학습을 미룰 수 없는 이유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는 AI 발전의 핵심을 과거의 '설명 기반'에서 현재의 '학습 기반'으로의 전환에서 찾는다. 60년간의 실패 끝에 인간의 학습 방식을 모방해 스스로 규칙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점은 AI가 더 이상 '프로그래밍된 기계'가 아닌, '성장하는 지능'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인간 언어의 규칙을 우리보다 더 잘 파악해냈다는 대목은 섬뜩함을 안겨 준다. 인간의 가장 고유한 영역이라 여겼던 '언어'마저 기계에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현실 앞에서, 인간만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AI 기술의 세 가지 큰 변화—멀티모델화, 트랜스포머, 추론 능력 강화—중에서도, 나는 추론 능력(COT, Chain-of-Thought)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초기 챗GPT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환각(Hallucination)'은 AI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AI가 정답을 내놓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추론 모델의 발전은 AI를 단순한 정보 생성기가 아닌, '함께 사고하는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단계라고 판단한다.

김 교수가 예측한 인간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표한다. 한국 사회의 높은 외로움 지수와 AI 챗봇의 접근성이 맞물릴 때, 인간이 편리함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적 반응일 수 있다. 시간과 감정 소모가 큰 인간관계 대신, 언제나 자신을 이해해 주는 듯한 AI와의 대화를 선택하는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이 고독한 현대인에게 일시적인 위안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사회성 및 공감 능력의 퇴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들로부터는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비이성적인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관계의 질적 하락은 피할 수 없는 딜레마로 남는다.

가장 실용적인 조언은 AI를 활용해 '직접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AI를 단순 검색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이 기술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일이다. 교수가 제시한 AI 에이전트, 바이브 코딩, 단편 영화 제작 세 가지는 모두 AI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생산'하는 주체가 되라는 주문이다. 특히 코딩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말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바이브 코딩 시대는 기술 접근성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이는 아이디어와 기획력만 있다면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개인의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코딩에 대한 장벽이 높았는데, AI를 활용한 코딩을 통해 사소한 문제라도 해결해보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얻었다.

결국 AI 시대의 핵심 능력은 판단력이다. AI가 훌륭한 조수와 도구가 될지라도, 수백 개의 결과물 중 최종적으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AI가 만들어낸 정보와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통찰력과 판단력이야말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이 강연은 기술의 발전에 압도되기보다, 기술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인간만의 고유성'을 지켜나갈 방법을 모색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